

예배순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신 앙 고 백 ----- 다 같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 410장 ----- 다 같 이

기 도 ----- 말 은 이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시고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 가정이 걸어갈 앞으로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정의 주인되시고 기뻐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 히브리서 4장 9절 ----- 다 같 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말 씀 ----- 추석 선물: 평강과 안식 ----- 다 같 이

찬 송 ----- 484장 ----- 다 같 이

주 기 도 문 -----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속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추석)만 같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석은 것처럼 날마다 계속되어도 좋을 만큼 마음 넉넉한 절기입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 보면 넉넉함이나 감사보다는 어려움이나 피곤함이 더 가득한 시대임을 알게 됩니다. 어른도 피곤하고 아이들도 힘든 시절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분주하고 뛰어다니고 또 어딘가에 매달립니다. 이런 분주함과 피곤함이 지금보다 더 나은 평안과 안식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피곤하지 않기 위해 피곤하고, 분주하지 않기 위해 오늘도 분주합니다. 모두 다 안식을 찾아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르고 붙잡아야 할 평강과 참된 안식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첫째로 성경은 평강 즉 평안과 안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히 13:20-21)

평강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안식, 그 행복과 감사가 인간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안식과 평안은 오직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향해 말하고 생각하고 달려갑니다. 평강과 인식의 출처가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달리는 길만이 실패할 수 없는 행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성도에게는 진짜 평강과 안식이 남아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히 4:9)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는 평강과 안식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서도 그 안식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기도의 세계를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기도 안에 영혼의 쉼터가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예배와 기도조차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안식!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 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학교와 직장, 가정생활, 질병과 염려와 가난 그리고 최종적으로 죽음이라는 무거운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 기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될 참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걷는 동안 곧 누리게 될 아버지 집에서의 영원하고 완전한 평강과 안식을 생각하면서 광야같은 세상을 이기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과 기도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고 종종 힘과 기쁨을 줍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평강과 안식은 얼마나 더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짜가 남아 있습니다!

추석을 맞는 모든 해림의 가족들에게 추석이 주는 현재의 감사와 함께 우리의 본향에 남아 있는 복된 평강과 안식을 소망하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김영우 담임목사

